

†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	
금주 미사 독서: 주민수 미카엘, 김상호 가브리엘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미사 독서: 한승호 임마누엘, 박주원 올리오타	교무금 : \$ 270
금주 미사 복사: 김지원 카린	봉헌금 : \$ 269
다음 주 미사 복사: 김보미 로사	감사헌금: \$200
금주 미사 해설: 윤지희 데레사	합계 : \$ 739
다음 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봉헌봉사: 조성익 토마스모어
반 주: 조은영 베다, 황지혜 레지나	다음 주 봉헌봉사:
회 계: 심윤필 베르나르도, 한진 베드로	윤보연 소화데레사
친교실 정리: 학부 구역	* 매월 마지막 주는 2 차헌금이 있습니다.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사제관 (10 월 5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다음 기도모임 9 월 첫주 금요일(장소 계시관 참고)
교리 모임	미정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오전 9 시 (장소: Tumbledown Trail)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오늘은 한국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충남 홍성 출신으로 1801 년 신유박해 때에 붙잡혀 순교한 황일광 시몬은 평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의 이러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 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그는 백성 출신으로 열심만 당하며 살다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황일광 시몬은 사회적 신분의 장벽을 넘어 모두가 같은 형제자매로 부르는 신앙 공동체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체험합니다. 순교자들은 이 새로운 세상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거슬러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른 것입니다. 그들은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로마 8,39 참조)는 사실을 믿으며 순한 고통을 겪고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과분하게도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이기심과 욕심, 세속적인 생각을 버리고 남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자세,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순교일 것입니다.	

주임 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거주사제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회장 김태진 하상바오로
(608) 628-7977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그룹
매디슨한인천주교회
E-mail
kccmwi@gmail.com

2012 년 9 월 22 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제 1 독서> 지혜서, 3, 1-9

<제 2 독서> 로마서, 8, 31 -39

화답송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알렐루야.
복 음 환호송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 음	루카복음, 9, 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오늘의 성가] 시작: 286 봉헌: 342 성체: 499 파견: 289



거리미사와 성체성사

박동호 신부

지금 이 땅 곳곳에서 길거리 미사가 봉헌되고 있다. 작은 고을 제주도 강정마을에서, 서울시청이 보이는 대한문 앞에서, 한강 상류 두물머리 강가에서, 청춘의 상징이었던 통기타를 제조하는 콜트콜텍공장 한 모퉁이에서, 그렇게 거룩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미사를 봉헌한다.

거룩함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참 익숙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에게도 거룩함을 수식하고, 성경·성당·성가처럼 책과 장소와 음악에도 거룩함을 수식하고, 성품·성직자·성인처럼 사람과 직분에도 거룩함을 수식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과 피에도 '성체'와 '성혈'처럼 거룩함을 수식한다. 그러나 익숙한 거룩함은 더는 거룩함이 아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 발에 밟힌 그곳, 자동차 소음과 수많은 행인의 분주함으로 어지러운 그곳, 무심히 흐르는 강 주변에 잡초가 제멋대로 자란 곳, 기계소리로 어수선한 곳, 그곳을 우리는 거룩한 곳, 곧 성당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를 성가라 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읽는 하느님 말씀을 성경이라 부를 수 있을까? 그곳에 모인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 성도(聖徒)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곳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성찬례라 할 수 있을까? 그곳에서 나누는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이라 할 수 있을까?

희생이란 말의 라틴어 어원은 '거룩함을 행하다'는 뜻이다. 그렇게 성(聖)과 속(俗)은 같은 내용의 두 이름인 셈이다. 거룩함은 희생을 구성하고, 행동은 거룩함과 짝을 이룬다. 우리는 그 전형을 성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서 거룩하기도 하겠지만, 그분 희생 때문에 거룩하다. 이웃을, 그것도 보잘것없는 이를, 배고프고 목마르며, 헐벗고 떠돌아다니며,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살과 피를 스스로 내어놓는 그 희생 때문에 거룩하다. 세상이 내버린 이들, 세상이 무능하다고 낙인 찍은 이들, 거추장스럽다며 사라져줬으면 바라는 이들, 그 보잘것없는 이들 가운데 하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맡기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렸기에 거룩하다.

희생이 없는 거룩함은 단순한 상징이며 표지에 불과하다. 상징과 표지는 실재가 아니다. 전통적 교리로 따지자면 성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그 희생(거룩한 행위)을 기억하며 그 희생에 동참하고 동행하지 않는 성찬례는 성찬례(성사)가 아니다. 우리들의 상징적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1. 9 월 추석 미사 안내

- 일시: 9 월 30 일 일요일 오전 11 시
- 장소: Mendota Park Shelter #1 (안쪽 호수 옆 위치)
- 주소: 5133 Cty Hwy M, Middleton WI 53562 (University Ave. -> Allen Blvd. -> Century Ave. 우측 위치)
- 29 일 미사는 없습니다.

2. 가톨릭 신앙 입문

- 예비자 교리 신청을 받습니다. 영세를 받고 싶거나 영세를 받았더라도 가톨릭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박상훈 신부님에게 알려주십시오.
- 3. 미사 후 사목회의가 있겠습니다. 사목위원, 각 구역장님, 성모위원님 참석 부탁드립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희생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우리가 기억할 예수님은 누구일까? 우리를 위해 당신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우리와 모든 이를 위해 피 흘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할 예수님 아닌가.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배고프고 목마르며, 헐벗고 떠돌아다니며, 병들어 누워있고 감옥에 갇힌 이",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다.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곧 이 세상 사회적 약자를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당부하신 최후의 유언은 떠올려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당신 몸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신 그것을 우리보고 계속해달라고 당부하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겉모습으로만 성과 속을 구별하는 데 익숙하다. 그래서일까, 전국 방방곡곡 성당에서 성음악과 함께 성스러운 미사가 매일 봉헌된다. 또한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땀들은 배고프고 목말라하며, 헐벗고 떠돌며, 아파하고 감옥에 갇힌다.

그러나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땀을 기억하며 봉헌하는 미사를 신기한 듯 바라보거나 차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미사를 길거리에서 하느냐"고 마뜩잖아 한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기 창립자의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알아보고, 그들의 궁핍을 덜어주도록 노력하며,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한다"(「교회헌장」 8 항).